

성송초 친구들의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프로젝트

어려움에 처한 지구 반대편 친구들
아름 함께하고 돕기 위해 활동 벌여

전교생 24명 시골의 작은 학교인 성송초등학교(교장 김나미)는 지난 19일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를 위한 자치바자회를 열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되는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기부 프로그램이다.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가정에 염소를 보내 가족의 자립과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 반대편 친구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돕기 위한 활동이다.

작년부터 2회째 이어진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전교생 다모임을 통해 바자회 계획부터 물품 모으기 음식 만들기, 모금 전달하기까지 스스로 진행해 기부에 대해 알고 몸소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바자회에서도 염소 14마리(한 마리당 4만원) 기부를 이루어냈다. 성송초등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원어민 선생님도 바자회 물품 판매에 참가해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활에서도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칩 학교를 찾은 이화근 교장교육지원장도 물품을 구매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교생 24명 시골의 작은 학교인 성송초등학교(교장 김나미)는 지난 19일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를 위한 자치바자회를 열었다

성송초등학교 김나미 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기부활동을 통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이동원 교수, 스프링거 네이처 최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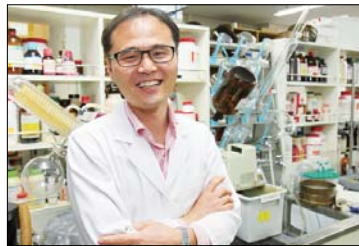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이동원 교수(대학원 BIN융합공학과)가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서 출간하는 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Biomaterials Research)가 주는 최우수논문상(Annual Biomaterials Research Prize)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1편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동원 교수는 천연 고분자인 키토산을 이용해 생체내 안전성과 광학 성질이 개선된 금 나노입자를 개발하여 형광 영상에 적용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염증성 혈관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나노 바이오 포토닉스 융합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제일건설, 푸른익산만들기 2천만원 기탁

제일건설 운영용 대표가 20일 익산시를 방문해 "푸른익산 만들기를 위해 사용 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기탁했다. 운영용 대표는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푸른 익산 만들기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푸른익산 가고 싶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현수한 수목을 도시숲과 공원 가로변에 식재하는 사업비로 활용 할 예정이다.

한편, 익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건설은 1988년 창립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집복 건설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로서 매년 익산시에 푸른 익산만들기, 장학재단과 어려운이웃 돕기를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결혼이주여성 추석맞이 예법 체험행사 성료

정읍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도)에서는 지난 20일 다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추석맞이 예법 체험 행사를 열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2018년 추석맞이 한복 입기·예절교육·송편 빚기 등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통예절문화원 김명희 원장이 초빙되어 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8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했다. 예절교육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비정신'을 강조하여 정숙하게 진행되었다. 음식체험에서는 송편 빚기, 전 부치기 등의 명절 음식 만들기과 차례상 차리기 등의 이론과 실습이 있었다.

/정은=김대환 기자

부안군 '행안면 부녀회' 추석맞이 독거노인 위한 김장 드려

부안군 행안면 부녀회(회장 임복순) 30여 회원들이 20일 행안면 공간마을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가드렸다.



행안면 부녀회는 매년 관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하기 행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대표적 나눔 행사로 회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100세대에게 각 가정으로 배달까지 진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임복순 부녀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그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이웃과 훈훈한 정 나누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일 직원(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남원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 전달 및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추석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원지사는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복지시설 위문방문, 행복한 진직상 배달 농촌일손 돕기, 농촌마을 가꾸기, 교통질서 캠페인 환경정화 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 정읍지사,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18일 정읍시 시가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아이원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은영경)와 독거노인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신진균 지사장은 아이원에 전통재미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아동센터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생활하시는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사시는 유기태 어르신 외 2명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알아보고 덕담을 나눴다.

한편, 은영경 아이원센터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해 주신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8년 11월 21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우 569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4-4호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85-4183	종양지사 010-9888-8674	남원지사 628-3886	고창지사 588-6889
심천지사 010-2339-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82-2725
서신지사 272-447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9084
호치지사 010-6865-8835	팔복지사 258-6884	남양지사 628-096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138	순창지사 659-4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